

(鄉土遺蹟)

향토유적



- 용주서원
- 파주향교
- 적성향교
- 김석봉처 열녀문
- 봉서리 충신열녀문
- 이이선생 신도비
- 청풍김씨 열녀문
- 감악산비

용주서원

(龍洲書院)



Information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호
- 지정년월일 : 1986년 4월 17일
- 시대 : 조선 중기 선조 31년(1598)
- 소재지 : 월롱면 덕은리 298
- 소유자 : 파주유림
- 규모 : 정면 7.5m, 측면 5.2m
- 재료 : 목조

院書洲龍

월

룡산 기슭에 위치한 용주서원(龍洲書院)은 조선 선조(宣祖)때 유학자이며 청백리에 농선된 휴암 백인걸(休庵 白仁傑 1497~1579)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자 건립된 서원이다.

1598(선조 31)년 백인걸 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학문과 후진 양성에 전념했던 옛 집터에 지방유림들이 서원을 세우고 사당을 지어 위패를 모셨다.

그 후 유생 정재심(鄭在心)이 사액을 청했으나 실패하고 철폐되었으며 그 자리에 유허비(遺墟碑)만 남아있다가 1924년 유생들이 다시 뜻을 모아 서원을 복원하고 백인걸 선생외에 그의 문인이었던 장포 김행(長浦 金行), 옥천 조감(玉川 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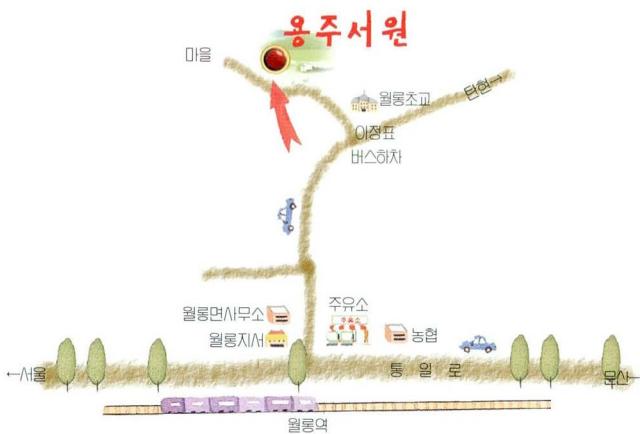
堪), 낙금당 신제현(樂琴堂 �慎齊賢), 당산 백유함(堂山 白惟咸)선생 등 5인의 위패를 모시고 배향하고 있다.

경내에는 1997년 개축한 5칸 규모의 정륜당과 사우, 내·외 삼문, 홍살문 등이 있으며 사우는 흙처마에 맞배지붕 건물로 정면 7.5m, 측면 5.2m의 6칸 규모이다.

그 좌측에는 1862(철종 13)년에 화강석으로 세운 『白休庵先生 遺墟碑』가 세워져 있다.

매년 음력 9월 9일에 파주유림에서 제향을 받들고 있다.





● 찾아가는 길 ●

서울역 922(좌석) 블광동버스터미널 909(좌석) 문산행을 타고
월릉역 앞 하차후 도로 건너서 월릉지서 앞에서 마을버스 6번 금승리행
버스타고 월릉초교 입구에서 하차 도보로 20분 소요됨



경의선(기차) : 서울역에서 문산행 월릉역에서 하차후 도로
건너서 월릉지서 앞에서 마을버스 6번 금승
리행 버스타고 월릉초교 입구에서 하차 도보
로 20분 소요됨



파주향교

(坡州鄉校)



Information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2호
 - 지정년월일 : 1986년 4월 17일
 - 시대 : 조선시대 영조40년(1764)
 - 소재지 : 파주읍 파주리 335
 - 소유자 : 향교재단
 - 규모 : 대성전 정면 9m, 측면 6m
명륜당 정면 10.9m, 측면 4.2m
 - 재료 : 목조

파 주향교(坡州鄉校)는
파주읍 파주리 마을 중간에
위치하며 경사지에 위치한 관
계로 뒤쪽 높은 곳에 배향공
간을 두고 전면 낮은 터에 강
학공간을 둔 전학후묘의 전형
적인 배치형태를 이루고 있다.

조선초기에 설립된 이 향교
는 선현의 위패 봉안·배향과
파주지역의 교육담당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1660년(현종 1)
에 사액되어 돈암서원이라 명
명되었다.

인조때 명륜당, 내·외삼문,
홍살문, 부속건물 등을 건립하
였는데 1870년 홍수로 인해 지금
위치로 옮겨왔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대성전, 내·외삼
문, 동재를 제외한 건물 등이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그 후 명륜당은 재건하고
내·외삼문과 주위담장 및 동재
등을 보수했다. 1973년에는 홍
살문을 보수하고 대성전을 새로
단청하였으며 1979년에 와서 명



룬당, 내·외삼문, 동재, 담장 등
을 보수하였다. 1999년에는 명
륜당을 새롭게 보수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교육적 기능은
약해지고 현재는 봄·가을로
석전제를 봉행하고 초하루, 보
름이 되면 분향을 한다.



● 찾아가는 길 ●

불광동시외버스터미널-격성행 직행버스
을 타고 파주읍 주내 삼거리(파주읍사무
소) 하차후 도보로 15분 소요됨

파주향교



작성향교

(積城鄉校)



Information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3호
 - 지정년월일 : 1986년 4월 17일
 - 시대 : 조선 전기
 - 소재지 : 적성면 구읍리 476-2
 - 소유자 : 향교재단
 - 규모 : 대성전 정면 8.4m, 측면 4.65m,
명륜당 정면 6.5m, 측면 4.5m
 - 재료 : 목조

7

성향교(積城鄉校)는 조선 전기에 적성면 구읍리 칠중성(七重城) 아래에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형식으로 설립해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창건되었다.

그러나 그 후 몇 차례의 전란과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것을 1970년에 복원하였다.

1971년에 명륜당을 신축하고 1975년에는 전반적인 중수가 있었다. 경내에는 대성전, 명륜당, 의심문, 홍살문이 있으며 대성전의 규모는 정면 8.4m, 측면 4.65m이며 익공계 양식 겹처마에 맞배지붕이며 방풍판이 달려 있다.



명륜당

명륜당은 정면 6.5m, 측면 4.5m 규모로 연등천장에 민도리집으로 홀처마에 팔작지붕 형태를 띠고 있다.

1975년 지붕과 벽을 보수했으며 1978년 명륜당 단청을, 1996년에 대성전을 개축하여 1997년에 단청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현재 봄, 가을로 석전제를 봉행하고 있다.



● 찾아가는 길 ●

- 불광동 909, 서울역 922, 경의선(기차) 이용, 문산역 또는 문산 버스터미널 하차후 적성행 92, 92-1 버스를 타고 적성터미널 하차후 백학행 마을버스를 타고 가다 적성향교 앞 하차
- 불광동 ~ 적성(적행) 타고 적성터미널 하차후 백학행 마을버스를 타고 가다 적성향교 앞 하차

김석몽처 열녀문

(金石夢妻 烈女門)



Information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4호
- 지정년월일 : 1986년 4월 17일
- 시대 : 조선 후기 영조 40년(1764)
- 소재지 : 파주읍 백석리 산20번지
- 소유자 : 남평문씨 종중
- 규모 : 정면 2.2m, 측면 2m
- 재료 : 목조

7.1 12

석몽처 열녀문(金石夢妻烈女門)은 김석몽의 아내 남평문씨(南平文氏)의 부덕과 정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문(旌門)이다. 일찍이 김씨 가문에 출가한 문씨는 효행이 뛰어나고 현모양처로서 부덕을 갖춘 부인이었으나 짊어서 남편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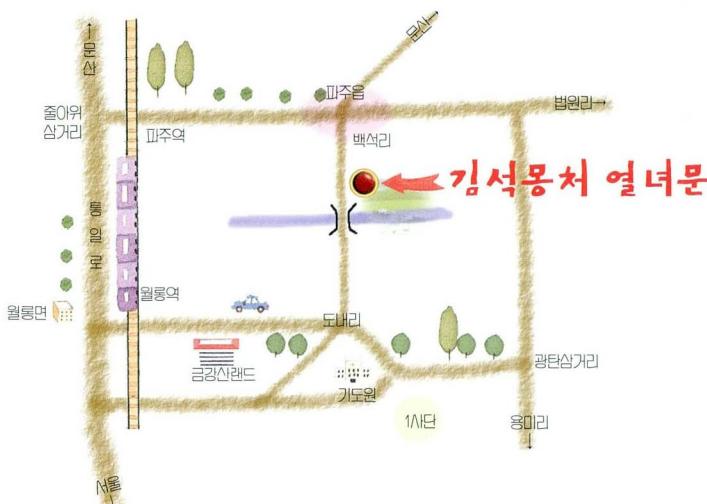
그러나 뜻을 견고히 하고 수 절하던 중 하루는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갑자기 악한이 달려들어 겁탈하려 하자 문씨는 이에 굽하지 않고 저항하며 순

절하였다.

이에 영조 40년(1764) 8월 조정에서는 문씨의 열부, 정절의 정신을 기리는 뜻에서 정려를 내려 세우게 하였다.

정려내에는 『烈女 金石夢妻 南平文氏之門 英廟甲申 八月日 命旌癸亥二月日 重修立』이라 음각된 현판과 『烈女旌閭記』가 걸려있다.

정각 규모는 정면이 2.2m, 측면 2m이며 맞배지붕에 한식기와를 올렸는데 현재의 정문은 1964년 2월에 신축한 것이다.



● 찾아가는 길 ●

금촌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산행 16번 버스를 타고 백석리 마을앞에서 하차

봉서리 충신열녀문

(鳳棲里 忠臣 烈女門)



Information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5호
- 지정년월일 : 1986년 4월 17일
- 시대 : 조선 중기 인조 11년(1633)
- 소재지 : 파주읍 봉서리 산 94-1
- 소유자 : 김진옥(사유)
- 규모 : 정면 5.3m, 측면 2.4m
- 재료 : 목조

을 지킨 그의 며느리 신평 송씨
(新平宋氏)의 순절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려이다.

김복경은 본관은 경주(慶州), 호는 몽윤당(夢允堂)으로 양주 목사겸 양주진병마첨절제사로 재직하던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군과 분전하던 끝에 48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봉서리 충신열녀문(鳳棲里 忠臣烈女門)은 임진왜란때 무장(武將)으로 활약하다 순국한 충신 김복경(金復慶 1545~1592)과 병자호란때 굳게 정절

宋平新人恭妻儉金郎德通女烈
之閭慶復金使制節僉馬兵鎮州楊使牧州楊行夫大政通臣

閭之慶復金使制節僉馬兵鎮州楊使牧州楊行夫大政通臣

이에 조정에서는 1633년(인조 11) 12월 그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해 정려를 세우게하고 『忠臣通政大夫行楊州牧使鎮兵馬僉節制使金復慶之閭』란 현액을 하사하였다.

김복경의 며느리 신평송씨(1583~1636)는 김복경의 아들인 통덕랑 김겸(金儉)의 처로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삼각산 기슭으로 피난을 가던 중 청군

에게 잡히게 되자 그해 12월 10일 자결했다.

1639년 나라에서는 송씨 부인의 정절을 표창, 열녀로 봉안케 하는 한편 『烈女通德郎金儉妻恭人命旌女』란 현액을 내렸다.

정각내에는 우측에 김복경, 좌측에 신평송씨의 현액이 봉안되어 있으며 정각규모는 정면 5.3m, 측면 2.4m로 맞배 지붕이다.



• 찾아가는 길 •

서울역 922(고급좌석), 블광동 909(좌석) 문산행
타고 봉서리 하차후 도보로 20분 소요됨

이이선생 신도비

(李珥先生 神道碑)



Information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6호
- 지정년월일 : 1986년 4월 17일
- 시대 : 조선 중기 인조 9년(1631)
- 소재지 : 법원읍 동문리 산 5-1
- 소유자 : 높이 223cm, 너비 109cm, 두께 39cm
- 규모 : 대리석

이 선생 신도비(李珥先生 神道碑)는 자운서원 경내 좌측 산기슭에 세워져 있는데 조선 중기 대학자인 율곡 이이(栗谷 李珥 1536~1584) 선생의 일대기를 기록한 비이다.

이 신도비는 율곡선생이 돌아가신지 47년이 지난 1631년(인조 9) 4월에 건립된 것으로 비문은 이항복(李恒福)이 짓고 신

익성(申翊聖)이 썼으며 전액은 김상용(金尙容)이 썼다

재질은 대리석으로 앞뒷면에 걸쳐 각자(刻字)되어 있는데 앞면에 몇 군데의 충탄 흔적이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223cm, 너비 109cm, 두께 39cm이며 현재 비각을 지어 보호하고 있다.



● 찾아가는 길 ●

■ 광동터미널 909(좌석) 서울역 922(좌석) 타고 문산터미널 하차후 11번 버스를 타면 자운서원 경유함.

■ 광동 버스터미널에서 30번(직행) 적성행 타고 가다 법원사거리 하차후 도보 30분 소요됨



관리실 : (031) 958-1749

청풍김씨 열녀비

(清風金氏 烈女碑)



Information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7호
- 지정년월일 : 1986년 4월 17일
- 시대 : 조선 후기 순조 24년(1824)
- 소재지 : 월롱면 능산리 산 33-1
- 규모 : 높이 120cm, 너비 57cm, 두께 20cm
- 재료 : 화강암

기 풍김씨열녀비(淸風金氏烈女碑)는 사헌부지평에 증직된 조중협(趙重協)의 처 청풍김씨(淸風金氏)의 효행과 부덕, 정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청풍김씨는 김홍노(金興魯)의 딸로 일찍이 조씨 가문에 출가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시부모를 봉양하고 남편을 내조하여 효부·열녀로서 타의 모범이 되었다.

1797년(정조 21) 2월 22일 남편인 조중협이 죽자 대소상을 마치는 날 저녁 끓는 물을 몸에 붓고 남편을 따라 순절했다.

이에 1810년(순조 10) 조정에서는 열녀 정려를 내리고 남편에게 사헌부지평을 증직하여 열부의 사표로 삼았다.

비의 앞면은 “烈女贈司憲府持平趙重協妻宜人淸風金氏之閭崇禎紀元後三庚年七月日命旌”이라 쓰여 있다. 비의 재료는 화강암으로 규모는 높이 120cm, 너비 57cm, 두께 20cm이며 화강암 장대석으로 기단을 만들고 비 주위는 보호책을 둘러 놓았다.

청풍김씨 열녀비



● 찾아가는 길 ●

서울역 922(좌석), 불광동 909(좌석)

문산행태고 월릉역앞 하차

도로건너서 임진리행 5번마을버스 타고

능산1리 마을회관앞 하차후 도보 5분 소요됨



경의선 (기차) : 서울역에서 문산행 타고 월릉역하차. 도로 건너서 임진리 행 5번마을버스 타고 능산1리 마을회관앞 하차후 도보 5분 소요됨

감 악 산 비

(紺岳山碑)



Information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8호
- 지정년월일 : 1986년 4월 17일
- 시 대 : 삼국
- 소재지 : 적성면 객현리 산 25
- 규 모 : 높이 170cm, 너비 70~79cm, 두께 15~19cm
- 재료 : 화강암

74
12

12 악산(紺岳山) 정상에 우뚝서 있는 이 고비(古碑)는 기단부, 비신, 개석을 갖춘 화강암 석비로 높이 170cm, 너비 70~79cm, 두께 15~19cm의 규모이다.

이 비에는 전혀 글자가 확인
되지 않고 있어 『몰자비』라 부
르기도 하고 『설인귀비』 『빗돌대
왕비』 등으로 구전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비에 대한 실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속전에 의한 기록만이 존재하고 있다.

1982년 동국대학교 감악산 고
비 조사단에서 2차례에 걸쳐 이

비를 조사한 결과 그 형태가 북한산의 진홍왕 순수비와 흡사하고 적성지역이 전략적 요지로서 진홍왕대에 영토확장 정책에 따라 세력이 미쳤던 곳이라는 점을 들어 제5의 진홍왕 순수비의 가능성은 제기했으나 그 역시 결론을 낼만한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못했다. 또 한편에서는 『진평왕비』일 가능성도 제기하였으나, 그 역시 결정적이지는 못하다. 앞으로도 이 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 여야 할 것이다.



● 찾아가는 길 ●

불광동 ~ 적성(직행) 적성터미널 하차후 의정부행 25번 버스를 타고 각악산 입구 영국군 참전비앞 하차후 산행 2시간 소요됨